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 : 소외감의 매개효과

이정림, 조영아*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s among Out-of school Adolescents preparing for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High School Degree: Mediating Effects of Alienation

Lee, Jung-Lim, Cho, Young-A*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Peace Security & Counseling Psychology,
Sangji University

요약 최근 들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로문제가 중요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의 유형 및 사회적 지지원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들의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소외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5개 권역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과 검정고시 학원의 학교 밖 청소년 207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소외감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활용하여 변인간의 관계와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진로장벽, 소외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소외감과 진로장벽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과 소외감은 사회적지지 중에서도 부모의 지지와 평가적 지지와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소외감은 부모지지 및 교사 지지와 진로장벽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으며, 친구지지와 진로장벽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다. 소외감은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정서적 사회적 지지의 모든 유형과 진로장벽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이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 및 교사, 친구들이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향상하여 소외감을 낮춰줌으로써 진로장벽을 낮춰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out-of-school adolescents has been increasing,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ir careers have become an important issu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barrier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ype/support source and to examine whether a sense of alien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s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preparing for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their high school degree. To accomplish this, a survey of 207 students from the Youth Support Center for out-of-school adolescents-K-Dream-and Qualification Examination Institute located in five regions (Seoul, Busan, Jeju, Gangwon, and Jeonla province) was conducted.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obel test were used to ver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nd mediation effects.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s a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lienation and career barriers. Career barriers and alienation were highly correlated with parent support and evaluation support. Moreover, a sense of alienation was foun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teacher support and career barriers, as well as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support and career barriers. A sense of alienation was foun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support/evaluation support/emotional support/mater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s. These findings imply that, in out-of-school adolescents, career barriers can be reduced through various kinds of social support provided by peers, parents and teachers as it decreases the sense of alienation.

Keywords : Career Barriers, Examination for high school Degree, Out-of-school Adolescent, Sense of Alienation, Soc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Cho, Young-A(Sangji University)

Tel: +82-33-738-7848 email: life7777@hanmail.net

Received April 14, 2017

Revised May 2, 2017

Accepted June 9, 2017

Published June 30,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또한 학교를 다녀야 할 학령기에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최근 5년간 약 4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2]. 사회적인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력부족으로 다른 일반청소년들보다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과 기회를 습득할 기회가 적다[3]. 학업중단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겪거나 다양한 기회에서 제한을 받으며, 범죄에 노출되거나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며[4],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할 때에는 가출, 폭력, 비행, 성매매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5].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로 선택은 이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다른 청소년에 비해 진로장벽이 많기 때문이다[6]. 진로장벽이란 개인이 결정하는 진로선택, 목표, 포부 등을 방해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칭한다[7][8].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재학생에 비해 진로와 관련된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다[9].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 교육기회가 박탈되어 진로 선택 및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10],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향한 뚜렷한 목표와 동기는 가지고 있지만 진로개척을 위한 정보수집이 어렵고 대학진학에 제약이 있어서[11] 높은 진로장벽을 경험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학업중단요인이나 지원 및 예방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진로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난 10년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 중 학업중단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가 45.2%, 지원 및 예방 대책연구가 33.9%를 차지하는데 비해 진로 관련 연구는 4.8%에 그치고 있다는 보고가[12] 이를 뒷받침한다.

다양한 변인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13][14]. 사회적 지지란 스스로 사랑과 돌봄을 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의사소통 망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정보이다[15].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현장을 떠남으로써 일반청소년에 비해 교사나 또래 친구들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16].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검정고시라는 진로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학업중단으로 인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지를 받을 기회는 제한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및 진로탐색 부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17].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으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이나 의사결정이 수월해져서 진로장벽이 낮아진다[18][19]. 실제로 오은경[16]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유지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주변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 진로의 어려움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적 지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출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물론 사회적 지지와 일반 청소년들의 진로장벽 간에도 일정한 관련성이 있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은 일반 청소년들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보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정서적이고 평가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진로장벽 간의 관계나 교사, 친구, 부모와 같은 사회적 지지원과 진로장벽 간의 관계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원 및 사회적 지지유형과 진로장벽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진로장벽을 낮출 수 있지만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가 늘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사회적 지지망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라는 환경적 변인과 함께 진로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심리내적 변인을 발견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외감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심리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1].

소외감은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경험으로, 자신과 삶의 유리감을 의미하며 무력감, 무의미, 규범상실, 고립감을 포함한다[20]. 청소년에게 소외된 상태는 외부와의 단절로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제약을 받게 한다[21].

또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소외상태의 청소년들은 현실 도피, 무력감, 좌절감, 절망감 등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위축되어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세우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5]. 따라서 소외감은 적극적인 진로탐색활동을 위축시켜 진로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소외감이 줄어들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소외감이나 불안, 우울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26].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가족, 또래 관계 및 학교 등 다양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27]-[29].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 중단은 가족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며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어들게 하고 사회적 고립과[4], 소외감의 증가로 이어지게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은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나 소외감과 각각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들에서는 각각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만 있었을 뿐, 사회적 지지와 소외감을 함께 고려하여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못했다. 또한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지지 유형이나 사회적 지지원과 진로장벽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소외감을 낮추어 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었다는 연구 결과는[22]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주변의 부모나 친구, 교사들의 사회적 지지가 소외감을 통해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론해보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진로장벽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원이나 사회적 지지유형이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 초점을 두어야 할 심리내적 변인을 확인함으로써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한 개입의 초점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가설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각된 사회적지지(사회적 지지 유형, 사회적 지지원)와 소외감 및 진로장벽 간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소외감,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소외감과 진로장벽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소외감은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각된 사회적지지(사회적 지지유형, 사회적 지지원)와 진로장벽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 본론

2.1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간의 관계

진로장벽이란 개인이 직업이나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인으로[30],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31].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규교육과정 기회의 박탈로 인하여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32],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진로장벽에 부딪힌다. 특히,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일반청소년들처럼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업을 지속해야 했지만,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 밖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준비,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11]. 또한 학업중단 바로 직후에는 자신이 세운 미래의 목표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점차 갑자기 주어졌던 많은 시간으로 처음 세운 계획과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어려워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3][34]. 이러한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 사회적 지지는 여러 연구들

에서 진로장벽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밝혀진바 있다[14][35].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고등학생들의 진로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다[14][36]-[38].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대학생들이 주변의 주요한 대상에게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을 낮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9][39]-[41].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근영[3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관심저하가 진로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가 진로장벽을 낮출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특히 청소년시기에는 부모, 교사, 친구 등이 중요한 대상의 사회적 지지원으로 작용하면서 진로장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10][19]으로 보고된 바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에 포함된 부모, 친구, 형제, 친척, 이웃[42]-[45] 등의 다양한 지지원으로 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2.2 소외감과 진로장벽의 관계

사회적지지 외에 진로장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소외감을 들 수 있다. 소외감은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청소년들은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45]. 또한 소외감은 자살, 비행, 학업중단 등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도 관련이 깊다[26][45].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경화[22]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소외감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진로장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외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장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도 소외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녀 고등학생 모두 소외감이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외감과 진로장벽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몇몇 연구들에서는 소외감을 더 경험 할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소외감과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어 김경주와 송병국[46]의 연구에서는 소외계층 청소년

들의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포부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윤주, 김경화와 민하영[21]의 연구에서도 수입이 높은 가정의 고등학생 보다 낮은 가정의 고등학생들이 소외감을 더 크게 느끼며, 진로장벽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절망적으로 생각하며 심리적으로 무기력한 고등학생일수록 진로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지각한다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22]-[24], 소외감이 사회적 고립, 무기력, 좌절감 등을 느끼게 하여 진로와 같은 장기적 목표를 실현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2.3 사회적지지와 소외감의 관계

청소년은 가족, 친구, 학교생활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이에 따른 문제 행동들이 발생하게 된다[27].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소외감은 불안 및 우울감 뿐만 아니라 비행, 가출, 학업중단 같은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25][28][48].

그런데 사회적 지지는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소외감을 감소시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돕는다[49].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삶의 무의미, 고립감으로 자기 소외에 이르게 한다[29].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해남[2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친구지지가 소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황지연[50]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갈등이 많거나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적게 받는 것이 초등학생의 높은 소외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숙[51]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응집력이 낮거나 또래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고등학생의 소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족이나 또래로부터 받는 지지가 소외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해보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소외감간의 관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양적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11]의 연구에서는 검정고시를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며칠

동안은 마음먹었던 대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심과 각오로 지내지만 가족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친구관계가 멀어지며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점점 더 위축되고 소외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을 면담을 통해 밝히고 있다. 또한 김범구[4]와 최하람[48]의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지고 소속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주변의 교사, 부모, 친구들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와 소외감이 모두 진로 장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낮은 사회적 지지는 소외감의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지지, 소외감, 진로장벽이 상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 세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사, 부모, 친구에게 받는 사회적지지원이 평가적, 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지지로 소외감을 낮추어 진로장벽을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즉, 소외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제주, 전라도 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9세에서 24세(청소년기본법)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6개 권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검정고시 학원을 중심으로 2015년 11월10일부터 2015년 12월 2일까지 약 한달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총 2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07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남자 83명(40.1%), 여자 124명(59.9%)이었으며, 15세 이하 2명(1.0%), 16세 15명(7.2%), 17세 70명(33.8%), 18세 52명(25.1%), 19세 53명(25.6%), 20세 5명(2.4%), 21세 이상 10명(4.8%)으로 17세-19세 비율이 가장 높았다.

3.2 연구도구

3.2.1 사회적지지 척도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52]이 개발하고 황윤경[53]이 수정 보완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측정하는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지지는 타인에게 있어서 받는 애정, 격려, 존중, 위로 등을 밀접하게 관계된 지지원에 의해 받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적 지지는 타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여 주는 것과 관련된 지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적 지지는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적 지지는 주위환경에서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다. 총 24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친구, 교사로 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지지원으로 부터 받는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전체의 Cronbach's α 는 .98이다.

3.2.2 진로장벽 척도

본 연구에서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54]와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5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남성 진로장벽의 Cronbach's α 는 .92, 여성 진로장벽의 Cronbach's α 는 .94, 진로장벽 전체의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3.2.3 소외감 척도

소외감 측정도구는 Mau[20]가 개발한 학생 소외감 척도(SAS:Student Alienation Scale)와 강완숙 [56]의 소외감 척도를 근거로 이은숙[26]이 제작한 소외감 척도

를 사용하였다. 무력감, 무의미, 규범상실, 사회적 고립의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은숙[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소외감 전체의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Win Ver 20.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설문 문항에 대한 측정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확인하였고,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소외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57]의 중다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소외감의 관계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장벽과의 상관계수를 <Table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r=-.54, p<.01$)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둘째, 사회적 지지와 소외감($r=-.61, p<.01$)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으로 보였다. 셋째, 소외감과 진로장벽($r=.77, p<.01$)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진로장벽의 자신감부족($r=-.50, p<.01$), 자기이해부족($r=-.52, p<.01$)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r=-.23, p<.01$) 낮은 상관을 보였고, 소외감의 사회적 고립($r=-.67, p<.01$), 무의미($r=-.65, p<.01$)와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규범상실($r=-.35, p<.01$)과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소외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지지와 소외감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r=-.65, p<.01$), 친구지지와 소외감은 상

Table 1. Correlation.

(N=207)

Variable	1-1	1-2	1-3	1-4	1-5	1-6	1-7	1	2-1	2-2	2-3	2-4	2-5	2-6	2-7	2	3-1	3-2	3-3	3-4	3
1-1.	1																				
1-2.	.84**	1																			
1-3.	.77**	.88**	1																		
1-4.	.92**	.88**	.83**	1																	
1-5.	.83**	.81**	.78**	.84**	1																
1-6.	.74**	.78**	.77**	.77**	.49**	1															
1-7.	.78**	.77**	.69**	.78**	.52**	.58**	1														
1.	.95**	.95**	.90**	.96**	.86**	.80**	.80**	1													
2-1.	-.48**	-.46**	-.49**	-.53**	-.44**	-.43**	-.42**	-.52**	1												
2-2.	-.49**	-.45**	-.40**	-.53**	-.47**	-.39**	-.37**	-.50**	.71**	1											
2-3.	-.26**	-.15*	-.15*	-.28**	-.35**	-.08	-.67	-.23**	.32**	.54**	1										
2-4.	-.40**	-.30**	-.30**	-.44**	-.41**	-.27**	-.24**	-.39**	.62**	.70**	.57**	1									
2-5.	-.45**	-.40**	-.43**	-.48**	-.52**	-.34**	-.24**	-.47**	.47**	.48**	.41**	.59**	1								
2-6.	-.47**	-.44**	-.39**	-.51**	-.41	-.39**	-.42**	-.49**	.68**	.72**	.35**	.67**	.46**	1							
2-7.	-.35**	-.28**	-.25**	-.34**	-.35**	-.30**	.12	-.33**	.41	.50**	.56**	.54**	.39**	.50**	1						
2.	-.54**	-.46**	-.44**	-.57**	-.54**	-.41**	-.34**	-.54**	.76**	.88**	.70**	.84**	.67**	.79**	.75**	1					
3-1.	-.44**	-.36**	-.39**	-.48**	-.50**	-.27**	-.26**	-.44**	.55**	.65**	.54**	.63**	.55**	.49**	.50**	.72**	1				
3-2.	-.65**	-.58**	-.54**	-.67**	-.60**	-.45**	-.54**	-.65**	.66**	.69**	.39**	.61**	.51**	.59**	.36**	.70**	.66**	1			
3-3.	-.29**	-.27**	-.26**	-.35**	-.45**	-.09	-.14*	-.31**	.49**	.49**	.49**	.50**	.45**	.41**	.36**	.58**	.71**	.48**	1		
3-4.	-.65**	-.59**	-.60**	-.67**	-.69**	-.48**	-.42**	-.67**	.62**	.57**	.40**	.57**	.54**	.55**	.42**	.66**	.69**	.83**	.56**	1	
3.	-.60**	-.53**	-.53**	-.64**	-.65**	-.38**	-.41**	-.61**	.68**	.70**	.52**	.67**	.59**	.60**	.47**	.77**	.88**	.87**	.79**	.89**	1
M	66.7	56.5	43.1	54.4	69.1	71.9	82.8	221.0	11.2	26.8	11.6	9.6	12.0	10.	16.7	98.2	16.4	18.1	14.7	17.0	66.4
SD	17.35	13.45	9.3	13.2	27.3	18.4	16.1	50.6	3.0	6.0	3.3	2.4	3.1	2.8	5.0	20.2	4.1	5.2	4.4	4.4	15.7

1-1. Emotional support 1-2. Information support 1-3. Material support 1-4. Evaluation support 1-5. Parent support 1-6. Friend support 1-7. Teacher support 1. Social support sum 2-1. Lack of self- understanding 2-2. Lack of confidence 2-3. Conflict with another important person 2-4.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2-5. Financial problem 2-6. Lack of career and job information 2-7. Sexual Discrimination and Gender Discrimination 2. Career barrier sum 3-1. Helplessness 3-2. Meaninglessness 3-3. Loss of norm 3-4. Social isolation 3. Alienation sum

대적으로 낮은 부적상관을 보였다($r=-.38, p<.01$).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지지와 진로장벽이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r=-.54, p<.01$), 교사지지와 진로장벽이($r=-.34, p<.01$) 상대적으로 낮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유형과 소외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평가적지지와 소외감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r=-.64, p<.01$), 물질적지지, 정보적 지지와 소외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적상관을 보였다($r=-.53, p<.01$).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에서도 평가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r=-.57, p<.01$), 물질적 지지와 진로장벽이($r=-.44, p<.01$) 상대적으로 낮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4.2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소외감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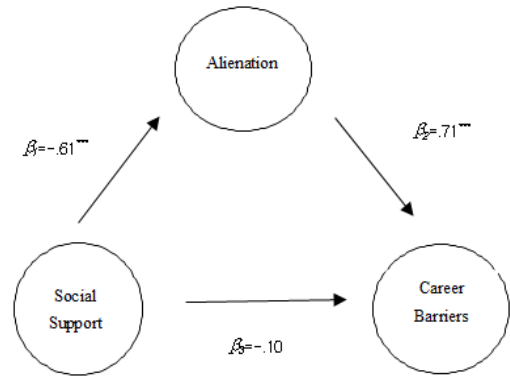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간의 관계에서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2>.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매개변인인 소외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61,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종속변인인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54,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소외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소외감이 종속변인인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beta=.71, p<.001$), 사회적 지지가 진로장벽을 예측하지 못하여($\beta=-.54$ 에서 $\beta=-.10$) 소외감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외감의 매개효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Z=-8.47$ 로 Z 의 절대값이 1.96 이상으로 소외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Fig 1>.

Table 2. Mediating effects of alie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s. (N=207)

	B	SE	β	t	R^2	F
Level1	-.19	.02	-.61	-11.13***	.38	123.88***
Level2	-.22	.02	-.54	-9.19***	.29	84.47***
Level3	-.04	.02	-.10	-.18	.61	159.37***
	.92	.07	.71	12.89***		

*** $p<.001$, ** $p<.01$, * $p<.05$

1. Social support→alienation
2. Social support→career barriers.
3. Social support→career barriers, alienation→career barriers.



Sobel Test Statistic $Z=-8.47, p<.001^*$

Fig. 1. The mediating model of alie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s.

4.3 사회적지지원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소외감의 매개효과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사회적 지지원에 따라서 각각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지지는 매개변인인 소외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65,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지지는 종속변인인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4,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지지와 소외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소외감이 종속변인인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beta=.74, p<.001$), 부모지지는 진로장벽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beta=-.54$ 에서 $\beta=-.06$) 소외감이 부모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obel test 검증 결과 $Z=-8.95$ 로 Z 의 절대값이 1.96 이상으로 소외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친구지지와 진로장벽 간의 관계에서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친구지지는 매개변인인 소외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8,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친구지지는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eta=-.41, p<.01$). 3단계에서 친구지지와 소외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소외감이 종속변인인 진로장벽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beta=-.13, p<.01$), 친구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41$ 에서 $\beta=-.13$). 결과적으로 소외감은 친구지지와 진

로장벽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검증 결과 $Z=-5.60$ 로 Z 의 절대값이 1.96이상으로 소외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지지와 진로장벽간의 관계를 소외감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교사지지는 매개변인인 소외감과 관계가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1,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교사지지는 종속변인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교사지지와 소외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소외감이 종속변인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beta=.76, p<.001$), 교사지지가 진로장벽을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면서($\beta=-.34$ 에서 $\beta=-.03$)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소외감이 교사지지와 진로장벽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bel test 검증 결과 $Z=-5.97$ 로 Z 의 절대값이 1.96이상으로 소외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4.4 사회적지지 하위유형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소외감의 매개효과

사회적지지 하위유형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지지는 매개변인인 소외감과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0,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지지는 종속변인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4,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지지와 소외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소외감이 종속변인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beta=.71$), 정서지지가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면서($\beta=-.54$ 에서 $\beta=-.12$)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소외감은 정서지지와 진로장벽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bel test 결과 $Z=-8.34$ 로 Z 의 절대값이 1.96이상으로 소외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은 정보지지와 진로장벽 관계에서 소외감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보지지는 매개변인인 소외감과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3, p<.001$). 2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보지지는 종속변인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7,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보지지와 소외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소외감이 종속변인 진로장벽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beta=.74, p<.001$), 정보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면서($\beta=-.47$ 에서 $\beta=-.07$)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소외감은 정보지지와 진로장벽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bel test 검증결과 $Z=-7.42$ 로 절대값이 1.96이상으로 나타나서, 소외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은 평가지지와 진로장벽 관계에서 소외감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평가지지는 매개변인인 소외감과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4,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평가지지는 종속변인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8,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평가지지와 소외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소외감이 종속변인 진로장벽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beta=.69, p<.001$) 평가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면서($\beta=-.58$ 에서 $\beta=-.13$)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소외감은 평가지지와 진로장벽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bel test 검증결과 $Z=-8.97$ 로 Z 의 절대값이 1.96이상이므로 소외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물질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물질지지는 매개변인인 소외감과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3,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물질지지는 종속변인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4,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물질지지와 소외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소외감이 종속변인 진로장벽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beta=.76, p<.001$), 물질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면서($\beta=-.44$ 에서 $\beta=-.04$)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소외감은 물질지지와 진로장벽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bel test 검증결과 $Z=-7.48$ 로 Z 의 절대값이 1.96이상이므로 소외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5. 논의

본 연구는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소외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소외감 및 진로장벽에 대한 설문문을 실시하였고, 총 20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는 서로 부적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14][19]. 또한 학업 유지형 학업중단청소년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한다는 오은경[1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가족의 지지나 갈등, 권유와 같은 가족요인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위험요인이나 학교 밖으로 나온 후에 사회적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4]. 즉,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후에 겪는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유형 중에서도 평가적 지지와 진로장벽 간의 상관성이 가장 높았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가장 쉽게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벗어나므로 인해 진로결정에서 중요한 자신감 형성의 근원인 인정 대상을 잃고, 중요한 결정상황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나 멘토, 학교 밖에서 만나는 선생님들로부터 자신의 결정과 성취에 대한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이들의 진로장벽을 해쳐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소외감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 학교에서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사회에서의 고립감, 가족과의 대화단절로 진로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고와 일치한다 [21][32]. 특히 소외감은 진로장벽 중에서도 자신감의 저

하와 가장 상관이 높았다. 이는 학교를 그만 둔 후의 부적응이 심화되면서 가족 간의 대화단절, 관계악화, 또래 관계 소외, 낙인감 등이 전반적인 위축감과 심리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58]와 일치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장벽과 관련해서도 단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지지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소외감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다는 이은숙[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 학교생활 등 주변 환경에서의 단절이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27]. 특히 본 연구에서 소외감은 평가적 지지나 정서적 지지와 상관이 높았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유의하게 낮아지며,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물질적, 정보적 지지보다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이 높다고 보고한 이영찬[3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긴밀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평가 역시 정서적 지지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겪는 정서적 단절과 혼란에 대한 이해와 지원, 진로계획과 수행과정에 대한 인정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소외감을 낮추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소외감 역시 부모의 지지가 교사나 친구의 지지보다도 소외감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면서 현실적으로 또래 친구들의 지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보다 부모의 영향력이 컸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학교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갈등을 겪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들로부터의 지지를 잃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 소외감을 겪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따라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이들의 소외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외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소외감을 매개로하여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정

화[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사회적 지지와 소외는 모두 관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를 떠남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은 사회적 지지를 더욱 감소시켜 대인관계에서의 고독감 뿐 아니라 내적인 외로움과 무력감과 혼돈감을 가중시키고 삶을 무의미하다고 더욱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소외감은 직업정보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 뿐 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의 핵심적인 진로장벽으로 작용하는 자기이해나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모 지지와 교사 지지는 소외감을 통해 진로장벽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외감을 낮추는 교사나 부모의 지지만이 진로장벽을 극복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친구의 지지는 진로장벽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소년기의 사회적 배제 경험이나 소외의 문제가 주로 부모나 교사와 같은 권위자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친구들의 지지는 소외감을 감소시키지 않더라도 또래로부터의 다양한 정보제공이나 인정 그 자체가 진로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부모와 교사의 경우에는 보다 심리사회적인 연결성을 회복하는 지지만이 진로장벽을 극복하고 학교 밖에서도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유형별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정보, 물질, 평가, 정서 등의 모든 형태의 사회적 지지가 소외감을 낮추어 진로장벽을 낮추는 간접효과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의 외부의 지지일지라도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이고 내적인 단절감을 회복하는 지원만이 진로장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가 소외감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졸 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의 감소가 부모, 친구 교사들의 사회적 지지에서 비롯되는 소외감의 감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즉,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소외감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와 교사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주요 역할은 소외감 감소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서적 돌봄, 격려, 인정 등과 같은 평가적, 정서적 지지가 소외감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며, 부

모의 관심과 지원이 진로장벽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교사, 친구들을 통해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학교를 떠남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회적 단절감과 변화의 시기에 겪는 내적 단절과 혼란을 상쇄시키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로를 개척해나가도록 돕는 방법이다. 이에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을 저해하는 학교 중단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나 교사와의 갈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이나 관련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친구관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을 제공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교사나 멘토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회적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5개 시도의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검정고시 학원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자들이 표집 되기는 했지만 대안학교나 집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에 차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시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 혹은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들과의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 결과가 단순히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현상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Educational statistics annual, 2015, 2, <http://kess.chedi.re.kr/index>,
- [2] C. K. Yoon, J. A. Seo, S. R. Yoo, A. M. Jo, Characteristics of discontinued adolescents and path after discontinuation of adolescent youth panel survey I data analysis report,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 1-323, 2014.
- [3] H. S. Park,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the school dropout of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3, no. 5, pp. 75-104, 2003.
- [4] B. G. Kim, Types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school dropouts: a latent class analysis approach, Myongj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5] M. J. Keum,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drop-ou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 14, no. 1, pp. 299-317, 2008.
- [6] B. H. Joen, The relationship among optimism, achievement motivations, and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school dropout adolescents, Keimy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7] Fitzgerald, L., F., Fssinger, R. E., & Betz, N. E,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Nj: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pp. 67-109, 1995.
- [8] Shuttleworth, C. L., The effects of perceived barriers on college women's occupational choice(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2.
- [9] K. S. Jeon, Empirical examination and research on the labor condition of the drop out teen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4, no. 1, pp.3-21, 2006.
- [10] J. H. Kim, A qualitative study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youth after school dropou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11] Y. H. Kim, The adjustment experiences of high school dropout youths who chose to take qualification examinations,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7, no. 2, pp.131-157, 2015.
- [12] Y. H. Kim, C. S. Huh, Research trends secondary school dropouts: 1991-2011,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2, pp. 1013-1028,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2.201204.1013>
- [13] J. H. Byeon, The Influence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igh school students :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Wonkw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14] T. Y. Um, E. H. Park, E. S. Ju,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lf-respect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among low-income adolescents in Korea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barrie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1, no. 3, pp. 197-222, 2011.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1.31.3.197>
- [15]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 38, no. 5, pp. 300-314, 1976.
DOI: <https://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16] E. G. Oh, The difference among social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by types of youth who are dropouts of school,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 12, no. 3, pp. 65-80, 2014.
- [17]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 331-333, 1997.
- [18] O. Kim, The effects of support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the mediation effects of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Kangw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19] S. H. Lee, The role of career barriers and social support in career development :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SSCT) and social cognitive theor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7, no. 4, pp. 1123-1135, 2006.
- [20] Mau, R. Y, The validity and devolution of a concept : student alienation. *Adolescence*, vol. 27, no. 107, 731-41, 1992.
- [21] Y. J. Lee, K. H. Kim, H. Y. M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lienation, career barriers, and suicide thought, suicide attempt of high-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6, no. 1, pp. 69-85, 2008.
- [22] K. H. Kim, Impacts of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of high school students : A mediating effect of adolescent's aliena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3, no. 3, pp. 191-213, 2011.
- [23] Brofenbrenner, U. The origins of alienation, *Scientific American*, vol. 231, pp. 53-61, 1976.
DOI: <https://doi.org/10.1038/scientificamerican0874-53>
- [24] Moyer, T. R., & Motta, R. W, Alienation and social adjustment among black and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logy*, 112, pp. 21-28, 1982.
DOI: <https://doi.org/10.1080/00223980.1982.9923530>
- [25] Wynne, E, Behind the discipline problem: Youth suicide as a measure of alienation. *Pbi Delta Kappa*, 59, pp.308-315, 1978.
- [26] E.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alienation and social supports in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0, no. 4, pp.496-507, 2001.
- [27] H. M. Nam, S. W. Ok,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 control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9, no. 7, pp.37-58, 2001.
- [28] H. N. Seo,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alienation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8.
- [29] Sankey, M., & Huon. G. F, Investigating the role of alienation in a multicomponent model of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ce*. 22. pp. 95-107, 1999.
DOI: <https://doi.org/10.1006/jado.1998.0203>
- [30] Swanson, J. L., & Daniels, K. K,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1995.
- [31] S. J. Kim,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Hop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Hongi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32] K. Y. Kim,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reer barriers of teenage school drop-outs and the supports to them, Jej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33] Y. C. Le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of the school dropout youth preparing of high school degree qualification examination, Jej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34] J. H. Jun, A study 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for high school degree, Seoul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35] Flores, L. Y., & O' Brien, K. M,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9, no. 1, pp. 14-27, 2002.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49.1.14>
- [36] S. R. Mo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decision status :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 [37] J. C.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social supports and college decision level perceived by general girls' high school student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38] D. S. Han, An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and barriers on the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che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39] J. U. Kim, H. H.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5, no. 2, pp.619-637, 2015.
- [40] B. R. Song, J. E. Hwang, K. H. Lee,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career barrier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2008, no. 1, pp. 664-665, 2008.
- [41] S. B. You, H. M. Yoon,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3, pp. 405-421, 2014. DOI: <https://doi.org/10.13049/kfwa.2014.19.3.405>
- [42] H. J. Kim,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ego-resilien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Han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43] G. S. Yang, S. S. Chang,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tective factors for school resilience: o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3, no. 3, pp. 127-148, 2001.
- [44] J. Y. Lee, S. Y. Kang, H. J. Kim, Y. Y. Lee, E. J. Ynag, Risk and protective factors perceived by school dropouts,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vol. 18, no. 2, pp. 225-241, 2010.
- [45] H. Y. Min, The influence of income and emotional closeness with father/mother on middle and high school-adolescent's alienation,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 17, no. 6, pp. 1105-1114, 2008. DOI: <https://doi.org/10.5934/KJHE.2008.17.6.1105>
- [46] G. J. Kim, B. K. Song, The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youth career aspiration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vol. 30, no. 2, pp. 91-115, 2011.
- [47] Y. J. Lee, K. H. Kim, H. Y. M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lienation, career barriers, and suicide thought, suicide attempt of high-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6, no. 1, pp. 69-85, 2008.
- [48] H. R. Choi, Moderation effects of dysfunctional impuls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and suicide behavior in the adolescents out of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49] Maguire, L, Social support systems in practice, I. H. Jang, S. R. Oh, Social support system, Seoul: Institute for Social Work Practice.
- [50] J. Y.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marital conflict, peer relationship and children's alien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51] E. S. Lee, The influencing factors on alien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34, no. 1, pp. 45-52, 2004. DOI: <https://doi.org/10.4040/jkan.2004.34.1.45>
- [52]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1985.
- [53] Y. K. Hwang, A study on social-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 peer-group and psychological Maturity,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6.
- [54] M. H. Hwang, E. S. Lee, S. K. Yo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areer barriers scale for female adolescents suggested,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6, no. 4, pp. 1205-1223, 2005.
- [55] M. H. Hwang, A. R. Lee, E.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 career barriers scale for male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6, no. 2, pp. 125-159, 2005.
- [56] W. S.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father's/mother's values, father/mother-student emotional intimacy & father's/mother's over - control and university student's alienation, Seou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57]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58] H. S. Kweon, J. A. Ru, The integrated school-based support model development for the at-risk youth,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8, no. 3, pp. 1205-1221, 2007. DOI: <https://doi.org/10.15703/kjc.8.3.200709.1205>

이 정 림(Jung-Lim Lee)

[정회원]



- 2016년 2월 :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문학석사)

<관심분야>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문제

조 영 아(Cho, Young-A)

[정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다문화 상담,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긍정심리학